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대주제 세션

젠더와 공정 다시쓰기

일시 2022년 4월 16일(토) 15:40~17:00

장소 성북 예방재

주최/주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대주제 세션

제3세션 (15:40~17:00)

젠더와 공정 다시쓰기

사회: 백미숙(서울대)

발표 1	한국의 2030 남녀와 공정성 프레임 발표 :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 2	공정성 담론, 그리고 페미니즘 발표 : 최이숙(동아대)
라운드테이블	강혜란(여성민우회) 김예란(광운대) 박다해(한겨레21) 양민영(사회적기업 운동친구) 엄혜진(경희대) 이동후(인천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사랑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대주제 세션
젠더와 공정 다시쓰기

한국의 2030 남녀와 공정성 프레임

홍찬숙(서울대)

한국의 2030 남녀와 공정성 프레임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19년 실시한 2030 인터뷰 결과 (47명)

<공정성의 중요성>

- 남성
 - 공정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 “정의=강력한 처벌”
 -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견해: “공정성=능력주의”
- 여성
 - 공정성에 비판적: “공정성=능력주의, 공정한 경쟁”
 - 비판의 이유: 구조적 문제를 은폐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 남성: 불공정하다
 - 범죄 처벌 미약, 인맥, 탈세, 빈부격차 등
 - 소수자 우대정책: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파괴

- 여성: 불공정하다
 - 구조적 성차별

1) 남녀의 공통점:

- 공정성 개념(=능력주의, 공정한 경쟁),
- '한국사회는 불공정하다'

2) 남녀의 차이:

- 한국사회 불공정의 내용
- 공정성 중시의 태도: 남성 일부의 태도

※남성의 '정의' 개념: '처벌' (cf. 콜버그-길리건 논쟁)

결론

- 1) '공정성 프레임'과 처벌 위주의 '법치주의' 프레임은 (일부) 청년남성의 인식에 부합한다
- 2) 청년여성은 공정보다 (구조적) 불평등을 더 중시한다. 즉 이들의 인식에는 '평등 프레임'이 더 적합하다

일상 개념으로서 '공정성'

[네이버 국어사전]

- 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름**
- 공평(公平):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형평, 균형)
- 공명정대(公明正大):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 공평무사(公平無私):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 대공무사(大公無私): 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 불편부당(不偏不黨):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음

⇒ equity, justice, public, impartiality. cf. 영어 단어: fairness

지배자의 덕목 vs. 제도적 절차

- 지배자의 덕목: 도덕적 문제 ('대공무사')
⇒ 억울함·원성이 없도록 배려, 지혜, 미덕
- 제도적 절차: 근대적 정치의 문제, 자유주의 원리
 - ① 고전주의 정치경제학:
공리주의적 효용성, 상호이익, 시장 중심 조율
 - ② 칸트의 사회계약론:
자유/평등의 균형, 보편윤리에 기초한 정치적 절차
⇒ '공정성' 철학: 게임이론 vs. 정의론

한국 청년층의 젠더 갈등

- 현재 한국 청년층의 특징
 - 인생 출발점: 과거 어떤 세대보다 부유한 사회에서 출생
 - 성장과정: 대입진학률 70% 이상의 극한 학력 경쟁
 - 미래 전망: 부모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 예상되는 최초의 세대
 - 산업화 사회의 동시대적 특성: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경제유연화(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로 성별 역할 변화, 노동기회 소멸의 위기
- ⇒ 복합적 변동이 '젠더 갈등'의 형태로 표출, '공정성' 개념 부각

한국의 '공정성' 정치

※ 근대 자유주의 철학에서 공정성 개념

- 배경: 신분제 공동체 붕괴 후 흡스적 상황 (사회연대 불가능)

⇒ 공정성, 사회계약 개념 중심으로 개인 간 합의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 수립 모색

1) 경제적 접근(자유주의 정치경제학): '공정성' 개념

시장에서 상호이익 실현 ('보이지 않는 손': 미시적·윤리적 접근)

2) 정치적 접근(사회계약론): 루소, 칸트를 거치며 평등과 보편적 인권 강조 ⇒ 롤스: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의 개념 통합 시도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거시적·정치적 접근)

※ 공정성의 관점들

1) 미시적·윤리적 접근: **양자 관계**에서 출발, 쌍방합의의 공정성 → 고티에(1986), '합의의 도덕'

2) '사회'적 접근: **3자 관계**, 제3자=판정관의 존재, 공정함의 **객관성** 문제 → 권력격차(불평등), 불편부당의 문제 등장

3) 절차적·정치적 접근: 객관적 공정성을 **절차화**하는 문제=정의로운 제도화의 문제='모두의 이익'(보편성) 보장 문제 ⇒ 롤스의 정의론(1971)

※ 불평등, 정의, 공정성

※ 롤스: 보편적 절차로서의 공정성 이론화 ('차등의 원리')

- 정의로운 기회균등의 원칙

- 단순 기회균등, 단순 능력주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결과적 평등' 주장

- 공리주의적 '복지론' 패러다임에 대비되는 '기회평등론' 패러다임

- 핵심: 능력, 시장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본인책임'의 문제, 즉 '우연적 불평등'(태생적, 환경적 불평등) 시정의 문제

⇒ 우연적 불평등을 시정할 사회의 기본구조=공정한 절차=정의

한국의 공정성 담론에서 본인책임의 문제

남녀에게 불공정 또는 불평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들

- 남성: 국방의 의무, 힘 쓰는 일, 결혼(데이트) 비용, 선물비용
- 여성: 노동시장 조건('남자=스펙'), 성역할('82년생 김지영'), 왜곡된 능력주의(학업능력 vs. 취업능력), 성폭력·성희롱 위험, 신체 결정권(낙태 결정권), 가부장적 조직문화 등

⇒ 남녀 본인의 책임이 아님,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결 필요

⇒ 여성 '평등' 담론화 vs. 남성 '공정성' 담론화

⇒ 문제 해결의 정치윤리에서 성별 차이 나타남

※ 정치윤리와 집단적 도덕 감정('억울함')

※ 고티에의 공정성 개념

'최소최대' 원리: 합의를 위해 각자 최대한 양보해야 하는 몫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한다 (↔ 롤스의 '최대최소' 원리=차등의 원리)

- 신고전주의 경제학 윤리

- '홉스의 방법으로 로크의 결과 얻기'

⇒ 협상 대상의 선택 문제로 연결 가능, 즉 강자보다 약자를 협상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약자협오의 가능성) 내포

한국 청년남성의 공정성 개념

- 불평등 문제: 수저(계급) 불평등, 세대 불평등, 계층 양극화 등 매우 복잡한 상황
 - 권력 격차: 경쟁구도 속에서 계급연대 불가능, 기성세대와의 권력 격차, 계층상승 전망의 부재
 - 불공정에 대한 **협상**의 상대 선택: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 할당제나 배려의 대상자)나 상대적으로 자신과 권력 격차가 적은 세력을 불공정 원인으로 지목
- ⇒ 온라인 젠더 갈등 양상과 맞물리며 불평등/권력 격차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표출, 고티에의 최소최대 원리와 달리 **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청년남성의 집단적 도덕감정('억울함')

- ※ 정의론의 '언어적 전화': 하버마스, '목소리'의 정의론
→ '인정투쟁'의 정의론 (악셀 호네프)
- 후기산업사회 노동자계급의 **분배정의** 투쟁에서 그 목적은 평등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인정 투쟁**
- 촛불혁명 이후 미투운동 → 해화역 시위 등 차츰 20대 여성 주도로 이슈 공론화가 이어지면서, 남성들의 '목소리' 공론화 실종, 온라인(특히 여성혐오적 **농담과 장난**)의 목소리로만 개별적 표출
- ⇒ 청년남성 오프라인 공론장 주도권 상실의 '억울함'과 인정투쟁 방편으로 젠더 갈등 더욱 강화

복잡한 불평등과 규범 변화

- 청년남성의 불공정 의식, 억울함의 원인:
 - **복잡한 불평등** 상황, 극심한 권력 격차,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집합적 대응(공론화)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
 - 남성 지위의 변동으로 **남성성 규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규범 변동의 방향성 상실(아노미) → 가부장적 기득권 상실과 동시에 성평등을 실천해야 하는 세대로서 억울함
 - 동 세대 남성 **내부의 격차**: 자원 동원 능력이 큰 20대 남성은 남성성 규범 변화의 위험이 크지 않다 → 세대 내 '루저' 낙인 위험
 - **여성**에 대한 자신감 상실: 여성의 자의식 변화, 학교 생활 적응 및 수업 능력 향상, 경제적 능력 향상, 정치적 공론화 능력 향상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사랑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대주제 세션
젠더와 공정 다시쓰기

공정성 담론, 그리고 페미니즘

최이숙(동아대)

공정성 담론, 그리고 페미니즘

-3040세대 자기계발챌린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질문하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목차

- 01 공정성 담론 다시보기
- 02 3040세대 자기계발챌린지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
- 03 페미니즘의 말걸기는?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1. 공정성담론 다시보기

01 공정성: 그 다양한 결들

담론 투쟁의 영역으로서의 공정성

- 공정성은 “자유, 정의, 평등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중첩된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형성되는 “담론 투쟁의 영역”(곽영신, 류용재 2021)
- 공정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정의 되느냐에 따라 기존의 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곽영신, 류용재, 2021; 박권일 2020)

공정성 담론의 다차원성

- 공정성과 연관되는 단어들: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정의/불평등
- “불평등이 차등적 결과라면 공정성은 차등적 결과의 합리적 근거, 기준에 대한 부분(중략)이러한 차등적 결과가 합당한 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지닌다”(우명숙, 남은영, 2021)
- “정의와 평등은 각각 올바른 상태나 공평한 상태를 지향하는 가치이자 추상적인 규범으로 공정은 이들 추상적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구체적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의적이다(정태석, 2021)

Part1. 공정성담론 다시보기

02 한국에서의 ‘공정성’ 논의

한국의 공정성 담론의 특징

- 곽영신, 류용재(2021) 한국의 청년 공정과 관련된 신문사설 분석.
: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나 공정 개념의 다차원성들은 다뤄지지 못한 채, 능력주의와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을 강조함. 그 결과 기존의 경쟁과 지배 체제의 정당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무관심과 옹호의 양상이 드러남. 기회의 균등 또한 ‘공정’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상대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 동원되는 경향이 존재.

한국의 공정성 담론에 대한 비판

- 한국의 공정성 담론은 사실상 능력주의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함(박권일, 2020, 곽영신.류용재, 2021)
- 박권일(2020). 최근의 공정성 담론 속에서 제기되는 ‘역차별’, ‘무임승차 담론’의 근거가 ‘내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관점에 입각한 공리주의적 사상에 기반함.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공정’과 ‘정의’를 가장해 정당화하고 있음을 지적 & 비판하였음. 이러한 공정성 담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
- 여성주의적 시각의 공정성에 대한 접근: 남성들의 약자 서사/역차별 담론에 대한 분석(김수아.이예슬, 여성혐오/성차별과 공정성 담론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홍찬숙, 2021; 엄혜진, 2021)

Part1. 공정성담론 다시보기

03 젠더, 그리고 공정성 논의

여성주의적 시각의 공정성 담론/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엄혜진, 2021)

-능력주의 담론에 페미니즘적 개입
-사회 계약론에 입각한 분배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 능력주의의 남성중심성과 능력주의 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의 구조를 밝힘, 최근의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과 정치 실천이 능력주의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함

Q) 능력주의 전선 앞에 선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인가?

“원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 계약론에 전제가 되는 로빈슨 크로소와 같은 성인 개인을 가정. 한 인간이 ‘성인’으로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 후에도 필요한 ‘상호 돌봄’, 인간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인프라, 인간의 다양한 위치성의 문제들이 간과됨(Butler, 2021).
-분배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인 개념의 문제이자 한계임(엄혜진, 2021)

Part1. 공정성담론 다시보기

03 젠더, 그리고 공정성 논의

여성주의적 시각의 공정성 담론/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엄혜진, 2021)

-능력주의 담론에 페미니즘적 개입
-사회 계약론에 입각한 분배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 능력주의의 남성중심성과 능력주의 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의 구조를 구체화함.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과 정치 실천이 능력주의와 상호작용하는 양상 논의함

Q) 능력주의 전선 앞에 선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인가?

“원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상호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개인이 사회 계약론에 전제가 되는 로빈슨 크로소와 같은 성인 개인이 됨. 한 인간이 ‘성인’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한 과정, 그 속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인프라, 관계망에 따른 다양한 차이의 문제들은 간과되고 있음.
분배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인 개념의 문제이자 한계임.

.....

.....

.....

.....

Part1. 공정성담론 다시보기

03 젠더, 그리고 공정성 논의

Q) 공정의 대상, 공정이 논의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국사회 공정성 논란의 영역: 교육, 취업, 정부의 재정지원 등 소위 근대적 공/사 구분에 있어 '공적 영역' 분배 패러다임 속에서 "가족과 여성의 삶이 정의의 대상에서 배제적으로 포함된" 상황(엄혜진, 2021)
 공정성 담론, 능력주의 논의: 서구적 근대가 가정하는 '공/사 분리'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흔히 배제된 부분-돌봄, 사적영역-에 있어 '공정', '정의'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1 3040세대 여성자기계발러들과의 만남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자기계발 강사 김미경의 514챌린지(새벽기상 챌린지) 참여자 중 3040세대 15인 인터뷰에게 '며느라기',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독서경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여성자기계발의 이중성
 -신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의 수용자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자기 계발의 의미: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저항 및 살아내기

인터뷰이의 특성

참여자	연령	직업	결혼/자녀	참여자	연령	직업	결혼/자녀
A	30대	전업주부	기혼/3명	E	40대	전 운동강사	비혼/2명
B	40대	생산직	기혼/1명	F	40대	영업직	비혼/1명
C	30대	사업준비	기혼/2명	G	40대	사업준비	기혼/무자녀
D	40대	사무직	기혼/1명	H	30대	현 강사	기혼/2명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1 3040세대 여성자기계발러들과의 만남

인터뷰이의 특성

참여자	연령	직업	결혼/자녀	참여자	연령	직업	결혼/자녀
I	30대	영업직	비혼/무	M	30대	전 카페운영	기혼/2명
J	40대	취준생	비혼/무	N	30대	자영업	기혼/1명
K	30대	취준생	비혼/무	O	40대	작가	기혼/1
L	40대	영상분야	기혼/2	P	40대	교사	기혼/2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2 나, 결혼, 돌봄의 의미

자기 계발의 시간-온전한 나를 찾는 시간, 나를 찾는 과정

- 새벽 시간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기혼 유자녀 여성과 비혼 여성 간에는 약간의 의미 부여 양상이 달랐음.
-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기존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던 시간, 아무한테도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함.
 "그냥 내가 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 삶에 계속 애들 케어하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가 없었잖아요."(B)
- 비혼(무자녀) 여성들의 경우, 동일하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나 '집중'의 이유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지런함'을 실행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자기 계발의 경험의 의미, 목적

- 기존에 "핑계되던 나", 조금 하다가 실패하며 "좌절감을 맛보던" 나를 "들어올리는" 경험(A, B, M, N).
- 나도 할 수 있으며, 성장한 나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 받고 지지 받는 경험. 실제 Mentor, 롤모델을 발견한 느낌.
- 자기 계발의 지향: 경제적 자유의 획득,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혼 여성의 경우 '사적' 영역, '돌봄자'로서의 나를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만나고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2 나, 결혼, 돌봄의 의미

부담, 자존감 상실의 자원으로서의 '가부장적 가족', '돌봄'

- (결혼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기억은 가부장제 하에서 상처, 자존감 상실의 원인, 견뎌야했던 순간으로 정의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 또 다른 그룹의 비혼 여성 또는 기혼 무자녀 여성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아이 출산이 일종의 “퀘스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유자녀 여성들의 언급에서 ‘자녀 돌봄’은 자녀의 성장으로 포스트 돌봄 상황에 있던(E)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전한 나’를 찾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내가 지어야 할 ‘부담’으로 의미화 되었다. 자영업/파트타임/직장 노동자의 경우, 돌봄 부담은 전형적인 이중부담으로 의미화 되었음. 현재 취업/창업준비자에게 있어서도 공적 영역의 진출 또는 그와 연관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었음.
 - ✓ A의 경우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의 돌봄 부담, 수입의 창출과 아이 돌봄의 의무 양자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해왔음. 그에 따른 갈등 존재
 - ✓ 돌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단절 상황에서 이유식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두가지를 모두 병행할 수 없어 중단 뒤 우울감에 시달림(C) 8년 동안 육아와 업무 사이에 저글링을 했지만, 아이 돌봄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실패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음(H).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2 여성주의 콘텐츠 그 의미: 힘듦과 공감 사이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 피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일부러 안 봤어요. 그 얘기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슬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거나 슬픈 거를 들으면 제가 더 슬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봤어요. 울고 싶지 않아서...그걸 보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더 힘들어지고 눈물만 날 것 같아서(B)

제 결혼 당시의 상처, 아픔 등을 다시 떠올리는 거 같아서 사실은 피했어요.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E)

공감은 하지만, 나의 현실과 거리 두기

저희 또래 이야기 싫어요. ‘그렇지’라고 보면서 더 ‘미혼’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J).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2 여성주의 콘텐츠 그 의미: 힘듦과 공감 사이에서

공감했던 나의 이야기

그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코너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마침 [김지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책이 또 빨리 잘 읽히더라고요 내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트에서 울었어거든요.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막 읽고 이제 아기랑 집에 오는데 그냥 뺏속에 있는데 아기도 그렇고. 옆에 손 잡고 가는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나도 남편 출근하고 나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저렇게 눈 치 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왜 집에서 애 보는 거는 왜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 뭐 이런 느낌. (중략) 제가 첫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출산 휴가만 쓰고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린애를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이제 나왔거든요. 출산 휴가 100일 있다가 아기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김지영처럼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 봤잖아요. 아기를 맡기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중략-첫째한테 필요한 것 같아 미루고 미루던) 임신을 해서부터 계속 고민이 됐어요. 나도 경단녀가 되볼까 아니면 그냥 또 바로 나가서 일을 할까, 어떤 게 맞는 선택일까. 그러면서 그때 워킹맘의 삶과 관련된 책을 막 찾아봤던 거 같아요(H)

디테일은 다르지만, 직장에서 겪은 나의 삶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I, G)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3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없음.

82년생 김지영이나 며느라기를 보기는 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A, D, H, M). D의 경우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다고 하였음. 82년생 김지영을 서점에서 울면서 공감했다는 H의 경우 역시 “내가 어떻게 돈 잘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뿐이라 함(H). 육아 휴직 등의 문제는 국가가 정책화 해서 풀어야할 이슈로 사고 하고 있음(M)

차별은 인정하지만 분리의 언어, 피해자화하는 페미니즘

저는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중략) 저는 그런 이야기는 그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자가 자꾸 피해 의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너는 양보를 해야 돼 자꾸 이런 어떤 강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어떤 한쪽만 보고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아들을 낳아서 내가 다른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략) 이렇게 좀 나누는 거 아닐까 좀 남자 대 여자 엄마 네 아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솔직히 바쁘면 내가 하고 내가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글썽요 저는 [김지영이 나왔으면] 아빠 얘기도 나와야지 아빠 얘기도 나오고 82년생 김철수도 나와야 되고...여태까지 남자들이 많이 어떤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했던 것도 인정은 하고 아직 여자들이 자리를 못 잡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 자리를 잡는다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까지 (중략) 분명히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시엄마는 다 나빠 남자 이런 남자들은 다 무능해 난 너무 불쌍해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3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페미니즘에는 동조한다. BUT...

'그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

요즘은 많이 왜곡이 돼 있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미투 운동도 있었고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어디부터 얘기 저희의 사실 아이들 사춘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니까 굉장히 혐오해요.(중략) [아이들과] 되게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혹시라도 노파십이 있어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혐오할 대상만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시작된 게 이런 게 아니다. 원래는 여자들이 노예였고 소유물이었고 우리도 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이니 이거는 그걸 먼저 알고 니들이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했고 제 엄마도 여자니까 나는 이제 저의 케이스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또 저의 이제 이런 독립이나 이런 거에는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왜곡된 거 아니니 생각을 해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미투 운동이나 우리도 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이니 이거는 그걸 먼저 알고 니들이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했고 그거에 보면 이제 엄마도 여자니까 나는 이제 저의 케이스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또 저의 이제 이런 독립이나 이런 거에는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왜곡된 거 아니니 생각을 해봐 무슨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중략) 저는 이제 미투 운동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페미니스트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거는 스스로 여자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찬성 하지만 저는 분명히 조절이 필요하고 본질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예요(E).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이 꼴페미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너무 이제 좀 약간 잘못되게 가긴 했지만 사실은 인권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면 페미니즘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I).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3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페미니즘에는 동조한다. BUT...

페미니스트로서 구조를 바꾸는 삶은 '나의 길은 아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쪽이 너무 괴로우면 그래서 저는 여성들의 일상을 다룬 것들을 오히려 저의 문제와 붙은 지점부터는 보지 않아요. 너무 힘들니까 그 시간에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재밌는 일들을 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 제도를 바꾸는 건 너무나 더디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살짝이나마 발 담가봤더니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안해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거나 좌절해서 패배자로 이 분야에서는 사회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패배자라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가 내 그릇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여성 영화제 계속 가고 변영주 감독님하고 방송하고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랬었거든요. 집에 있는 책들도 '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고 그러고 근데 얘기를 낱고 나니까 사회 직업인으로 사는 것과 엄마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막 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안하지만, 난 그 정도 그릇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중략) 문제의식은 같지만, 너무나 가고 싶지만, '그래도 안되는 건데, 뭐' (중략) 남성중심적인 세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그냥 삶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정말 에너지 있으신 분들이 하면 너무 감사하지 응원'은 하지만 저는 못하는 그런 정도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3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와의 결합: 여성의 영향력 강화를 통한 사회 변화

-생존을 위한 탐험의 과정에서 긍정하지 않은 세상을 보는 틀로서의 페미니즘

[제가 페미니즘은] 저의 생계 생존[이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겠지만 한국 사회가 조금은 더 억압하고 강압하고 조금은 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중략) 실상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착을 못했고 정규직의 그런 격차 같은 것도 물론 제가 되게 똑똑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했으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고 했겠지만 기업의 임원 수를 봐도 그렇고 여성보다는 남성 쪽이고 근대 문제도 고질적이죠. 그 문제도 계속해서 들고 가니까 약간 시각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근데 왜 나는 저 친구보다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페미니즘은 생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생존이자(K)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3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와의 결합: 여성의 영향력 강화를 통한 사회 변화

-페미니즘과 자기 계발의 언어는 결합: 피해자화를 넘어서기 위한 결합

저는 조금 과격한 페미니즘을 지향하긴 하거든요. 여성주의가 사실 여기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해야 하고 지금의 10대 지금의 미취학 아동인 여성 친구들까지도 나중에 20대가 되었을 때 조금은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저는 약간 기혼이신 분들의 그 경험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을 하더라도 여성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사실 돈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축적을 하려면 마인드셋 자체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피해를 보는 게 많고 피해자가 보통의 여성들이다 보니까 약간 과격해지고 조금 톤이 업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피해자다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여성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성공 마인드 이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인드 셋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본을 이용을 해서 흐름을 파악해서 조금 더 축적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것도 이제 기성세대들의 경험치와 노력과 어떻게 보면 성공 노하우 팁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갈등이 있고 좁혀지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섞일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K)

Part2. 3040세대 여성들의 목소리

04 정리 & 질문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공정성 담론의 전제에 대한 수용

- 분배 패러다임 속 '개인'에 대한 추구: '온전한 나' vs 엄마/양육자
-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의 의무 수용 & '발목', '부담'으로 규정

Q) 이러한 여성들의 자기 계발에 대해 어떠한 시선으로 다가서야 할까? 가부장제 사회의 가족 관계, 젠더화된 돌봄 구조에 대한 경험, 성찰, 일상 속 저항의 경험들에 어떻게 개입 해야할 것인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정의 언어, 갈등의 언어, 버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단순히 언론의 젠더 갈등 담론에 포획된 존재로 규정하고 말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와 2030 세대 페미니스트의 실천 간의 결합 문제는 또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Interlocking inequalities에 대한 개입, 비판+긍정과 새로운 삶/대안의 언어로 페미니즘은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이 현재의 자본주의,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Part3. 페미니즘의 말걸기는?

01 '온전한 나' 신화에 대한 해체

능력주의의 '온전한 나'-로빈슨 크루소

- "원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 질문: 인간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상호 돌봄이 필요한 주체로서 재규정 하는 작업

Part3. 페미니즘의 말걸기는?

02 '돌봄' 혐오를 벗어나자

한국사회에서 '돌봄'은 과연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 근대의 형성 과정에서의 돌봄
- 페미니즘에서의 돌봄에 대한 사유: 돌봄의 재발견 BUT 돌봄은 언제나 '책임', '부담'의 맥락 속에서 정의 되었음(ex-돌봄민주주의: 돌봄 책임의 민주주의)
- 돌봄은 피하면 좋은 것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돌봄 수혜자에 대한 타자화에서 과연 벗어났는가?

책임이자 '권리'로서 돌봄을 규정하기.

- 부담/책임 접근: 돌봄이 즐겁게 위한, 돌봄이 맞돌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Q)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언제나 힘든 일인가? 돌보는 행위가 주는 기쁨과 종만함의 경험을 살릴 필요는 없을까?
- 누구나 제대로 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돌봄 수행을 하나의 '권리'로 명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동일한 요구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요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Part3. 페미니즘의 말걸기는?

03 '돌봄'의 가치, 그 제도화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돌봄'의 중요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노동의 개념, 노동 문화의 변화, 공적 제도/운영 원리의 변동)
- 상호 돌봄, 함께 돌봄의 중요성/의미를 경험하는 과정이 요구됨.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리부트캠프(Re:Boot Camp) 3기를 모집합니다.

루트인베스트 임팩트벤처스 팀은 2018년 임팩트벤처에 W 프로페셔널 현황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적 경제인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채용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되었던 임팩트벤처에 W의 Phase 1 핵심 활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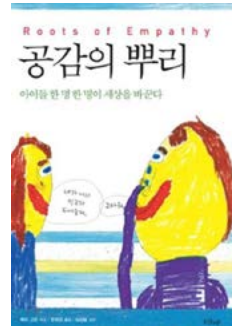
1) 달리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별할 수 있는 채용 포지션을 설계하고, 2) 경력보유여성이 그 포지션에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키를 향상시키고, 3) 적극적으로 일부의 경력단절 관련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력보유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학습하여, 그들이 커리어 재시장을 결정하고 도전해가게 되, 보다 훌륭한 일제과 중재의 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정
육아도 경력입니다
서울 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증서 발급하는 조례 추진
2021년 11월 10일



2021년 11월 10일, 서울 성동구, 육아도 경력입니다. 서울 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증서 발급하는 조례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모습



.....

.....

.....

.....

참고 문헌

- 곽영신, 류웅재.(2021).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 청년 공정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한국언론학보,65(5),5-45.
- 김수아, 이예슬.(2017).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한국여성학,33(3),67-107.
- 박권일(2020). 공정성 전쟁-한국형 공정성과 능력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엄혜진.(2016).여성의 자기계발, 소명의 고안과 여성성의 잔여화.페미니즘 연구,16(2),215-265.
- 엄혜진.(2021).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경제와사회,47-79.
- 우명숙, 남은영.(2021).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아세아연구,64(1),201-244.
- 정태석.(2021).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경제와사회,12-46.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대주제 세션
젠더와 공정 다시쓰기
토론문

강혜란(여성민우회)

김예란(광운대)

박다해(한겨레21)

양민영(사회적기업 운동친구)

엄혜진(경희대)

이동후(인천대)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을 위한 공정성을 고민하여야 할 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1)

-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상황, 주체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즈음임. 특히 인천 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전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판단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불공정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역차별’이라는 용어의 남용도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것임.
- 최근의 공정성 담론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의 독식구조를 혁파하는 논의가 아닌 약자를 밀어내는 논리로서의 ‘공정’ 혹은 ‘공정성’ 담론은 시급히 재구성되어야 할 사회적 인식이 아닐 수 없음.
- 남성과 여성/성소수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인과 선주민 사이의 역사적,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배제된 ‘공정’ 경쟁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 시대의 ‘공정’ 담론은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하여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오로지 고립된 개인으로만 존재하면서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두려움이 오늘을 살아낼 동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임. ‘최저’가 아닌 ‘적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와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 공동체주의적 연결 감(돌봄, 연대, 대안공동체)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봄.

(2)

- 최근의 '젠더갈등' 담론은 온라인 하위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를 언론이 반복적으로 받아 적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힘을 갖게 된 '허구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난해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온라인 공간을 넘어 커다란 사회 이슈로 등장함.
- 재보궐선거 직후 만 19세~29세 남녀 1,504명(여성 715명, 남성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인식조사¹⁾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정책에 대한 20대 여남의 인식 격차는 존재하지만 성평등정책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고 함.
- 조사에서 주목되어야 중요한 내용은 여남 공히 청년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확대, 취업 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들고 있다는 것임. 이는 앞서 논의한 '공정성' 담론의 배경과도 일치하는 내용임. 즉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재분배 시스템의 한계,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년 여성과의 갈등이나 성평등정책의 후유증으로 몰아가는 페미니즘 백래시 세력과 그에 부응해온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청년 남성에게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음.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을 대립과 갈등의 주체로 간주하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완전히 갈라진 집단처럼 논의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임. 이러한 대립구도가 정말로 실재하는지,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집단 내부가 경제이슈보다 젠더이슈와 관련해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지는 좀더 면밀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음.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20대 청년의 성평등 인식 격차와 정책 과제

차이의 정의를 제안하며

김예란(광운대)

사람들은 침묵 속에 함께 서 있는 그 강렬한 방식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육체가 고통받아왔고 투쟁해 온 그 역사적 맥락 안에 육체를 위치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슬픔,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자기 성찰적인 동시에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육화된 실천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조, Judith Butler, Seelinger, M. and Braslavsky, 2022와의 인터뷰에서).

젠더와 공정을 다시 쓰기 위한 본 기획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공정의 개념이 미처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채, 한국 담론의 헤게모니를 구축한 현상은 불행합니다. 공정에 대한 찬성도 그에 대한 반대도 모두 공정이라는 헤게모니 축 안에서 경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이라는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의 틀의 내부에서 공정이라는 게임의 논리 안에서 찬반을 논함으로써 공정이라는 벽을 더 두껍게 키우는 데 기여하는 대신, 공정 담론의 외부에서 생각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장의 타당성을 자기 검토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공정 원리의 내부에 있으면 안 되는가? 왜 공정이라는 사고로부터 원천 방어하는가? 정치적으로 비호의적인 ‘그들’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이념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공정(fairness)는 배분의 원리이기 때문에, 유용할 수는 있지만 충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은 지렛대의 수평이 맞으면 완료되는 절차적 개념입니다. 반면 정의는 완료될 수 없는 지속되는 변화 과정입니다. 즉 공정은 편을 나눈 후, 이들에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공평한가를 계산하는 분리와 경합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편을 나누지 않기로 한다면, 배분 대신 공유와 공존을 바란다면, 또 지렛대가 평행인 공평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조건부터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정은 적합한 실행원리가 되지 않습니다(Littler, 2018).

따라서 공정 대신 정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젠더라는 축과 공정이라는 원리는 그 이분법적

구조의 상동성으로 인해 담론화의 기술과 브랜딩에 따라 매우 탁월한 이념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즉 남/녀 라는 이분화된 집단을 상정한 후, 이들을 어떤 무게의 추를 매달아 지렛대에 매달려야 물리적 균형이 맞을까를 계산하는 사고방식이므로, 약한 쪽에 집중하여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할 정치성이나 아예 양분화된 논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윤리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젠더와 공정을 연결시켜 쓰면 쓸수록, 다시 쓸수록, 공정의 논리는 더욱 타당성을 얻으며 강해질 것입니다. 공정이란 담론에 발목이 붙잡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개념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고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 간의 오래된 차별 구조 뿐 아니라 남성 안에도 여성 안에도 차등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모든 남성이 '보수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진보적'은 아닙니다. 이 뿌리깊은 차별과 불평등이 '젠더'라는 이분 구조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해지기 시작한 것은 보수집장이 주도한 최근의 정치적 발명 이후입니다(이와 유사한 세대적 관찰은, 신진욱(2011) 참고). 젠더의 이분법을 나눠서, 현재의 차별과 불평등을 '문제화'하는 입장과 이를 '문제'라고 낙인찍는 입장이 새롭게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차이를 가로지르는 공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존은 연대와는 다른 개념인데, 한글의 연대와는 조금 달리 '솔리디티solidity'는 동질성의 고체로 응결되는 어감이라면, 공존은 차이가 함께 있고 함께 하는 공통성(the common) 발명의 열린 기획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정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주디 버틀러의 말처럼, 정의는 슬픔과 분노에 젖고 그것을 안고 싸우는 몸들이 공유하며 노력할 수 있는 가치이자 미덕입니다. 정의에 대한 몸들의 성찰과 노력이 함께 할 때, 때로는 침묵으로서 있기만 한 방식을 통해서도, 그 몸들을 역사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 순 있지만, 적어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더 소환해야 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입니다. 전통적으로 페미니즘의 돌봄의 윤리에서 돌봄과 정의는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정의는 남성 지배적인 상징구조를 돌봄은 여성적인 관계를 의미했고, 정의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것이지만, 돌봄의 특정한 타인과의 정동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둘이 공존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정의와 돌봄의 공존가능성을 탐색하고 확산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 같은 개념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돌봄의 행위가 정의라는 대원칙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돌봄의 보편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처의 이름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이 행정적 업무의 핵심은 돌봄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돌봄을 주무로 하는 부서란 허용하기 어렵겠지요. 이 문제가 보다 큰 시각에서

이해되고 수정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차이의 정의를 포괄하는 돌봄의 정치화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공정의 담론 헤게모니가 해체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 담론의 장벽을 넘을 때만이 돌봄의 윤리도, 돌봄의 사회적 보편화이며 정치적 조직화인 정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회적 삶이 유지되는 안정으로서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신진욱 (2021)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Agamben, G. (1990). *La comunita che viene*. 이경진 (역) (2014).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Little, Jo. (2018) *Against Meritocracy: Culture, power and myths of mobility*. Routledge.

Nancy, J.L. (1986). *La communauté désœuvrée*. 박준상 (역) (2010).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Seelinger, M. and Braslavsky, P. (2022)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public sphere: An interview with Judith Bulter. *Theory, Culture & Society*, (online first).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YU Press.

젠더와 공정

박다해<한겨레21>

#1. ‘공정 담론’으로 되찾은 목소리

- ‘페미니즘 대중화’는 최근 7~8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이자 기반이 되어줌. ‘해화역 시위’ 등이 대표적인 자리가 됐을 것.
- 이 시기 동안 홍찬숙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함. ‘공정’이란 단어의 부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억울함(?) 또는 피해의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럴싸해 보이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가능했음. 여기에 왜곡된 의미로 ‘공정’을 적극 사용하고 남초 커뮤니티의 논리를 그대로 흡수한 정치인 이준석이 거대 정당 당 대표가 되면서 목소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함.
- 남초 커뮤니티에서 ‘역차별’을 ‘공정’으로 포장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다뤄지는 ‘공정’ 담론-주로 절차적 통일성, 일관된 규칙의 유무 등에 집중되고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에는 여성들 역시 동의하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싶음.
- 젠더란 변수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경쟁과 적자생존을 내면화한 세대의 공통점으로 볼 수도 있음.

#2. 왜 ‘갓생살기’, ‘미라클모닝’은 여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할까?

- 유튜브에서 ‘갓생살기’와 ‘미라클모닝’ 챌린지 등을 검색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여성이 남성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게 됨. (통계를 내보진 않았으나) 왜 유독 여성들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할까 궁금해하던 차에 최이숙 선생님의 발표를 흥미롭게 들음.
- 연구 대상이던 3040 여성뿐 아니라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세대인 20대 여성의 목소리가 궁금해지기도 함.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페미니즘이 이들의 ‘야망’ 담론과 맞닿는 지점들이 있었음. 즉, 소수자와 연대해서 잘못된 체제를 바꿔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힘이 센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바꾸려면” 페미니즘이란 개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 EX)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

- 이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거나 말하는 20대 여성들조차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 개인이 노력해서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임. 문화적으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뚜렷할 수밖에 없는 이들.
- “약자는 아니지만 차별받고 있다”(시사IN)는 서술에서 “약자는 아니지만”이란 감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자신이 약자도 아니라고 느끼지만, 약자이고 싶지도 않은, 구조적 차별은 개인의 노력으로 넘어서고 싶은 이들의 존재.
-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는 진보 정치나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여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2022년 2월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10만 서명(2만 9512명 서명)은 왜 실패했을까란 고민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3. ‘공정’은 어떻게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었나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조국사태 등 이른바 ‘공정성’ 담론에 불을 붙이는 굵직한 사건들이 존재하긴 했음. 다만 이후 논의들이 ‘공정’이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다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공론으로 이어졌다기보다 싸움과 갈등으로만 변질.
- 청년세대/이대남이 말하는 ‘공정’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규정되거나 개념화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보도를 통해 마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담론’처럼 자리잡게 됨. 즉,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공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정’이란 가치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 이는 언론 보도의 관행들, 즉 (1) 논란 또는 갈등이 되면 일단 쓰고 (2)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모든 이슈를 ‘VS’로 보도하고 (3) 커뮤니티발 여론에 대한 검증이 실종된 상황 (4) 정파적 보도 등이 (정의조차 불분명한) ‘공정’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버린 격.
- 아젠다 세팅 기능과 신뢰가 모두 상실된 상황에서 언론이 어떻게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남음.

#4. ‘공정 담론’이 가리는 것들

-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론화되는 방식은, “무기화된 공정”(김정희원)을 남초 커뮤니티와 정치인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줌.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으로 포장한) ‘역차별’ 주장에 기대 정치적 지지를 위해 활용하는 포퓰리즘.

- ‘공정’ 담론에 담긴 이야기는 결국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가치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맞닿아 있음. ‘불평등/재분배’를 이야기하지 않고, ‘공정’만 반복하다 보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허공만 때리는 격.
- ‘젠더 갈등’, ‘영끌’, ‘공정’ 등 많은 이슈들이 각각 다른 논의처럼 표상되긴 했지만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같음. 부의 재분배,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안전망 등을 포함한 복지체계 재정비 등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운동 분야에서의 성차별과 공정성

양민영(주식회사 운동친구 대표)

빼앗긴 운동장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은유하는 표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쓴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의 운동장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울어졌다는 표현이 무색하게 성차별이 극심하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다 못해서 빼앗겼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 운동친구는 여성이 운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여성 전용 운동 클래스와 여성 러닝 대회 등의 다양한 문화기획으로 해결하고 여성이 스포츠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럴 때마다 악플러들에게 공격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퍼부었던 조롱, 비난, 운동 분야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면 그들은 ‘너희(여자들)가 운동을 싫어해서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운동을 못하는 건데 그것도 남자들의 잘못이냐’, ‘페미들은 별 걸 다 남탓하고 물고 늘어진다’, ‘운동하고 싶으면 하라, 누가 말리냐’ 등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렸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성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을 상대로 평소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운동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어보면 그 결과는 성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여성이 운동을 하면 지나치게 주목받기 때문에 시선을 받은 일을 최대한 꺼리게 된다는 대답이 많다. 운동하는 여성의 몸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남성들은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에게나 시선이 가지, 못생긴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혼자 착각한다는 말로 반박한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운동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체육관에 갔다가 웃음거리가 될까봐 불안하다는 대답도 많다. 반대로 체력이 강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여자 맞냐?’, ‘남자 같다’는 비아냥을 듣는 게 불쾌하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이전에는 여성도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활동을 즐기다가 2차 성징과 함께 운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하는 내 몸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지나치게 주목

받는 일, 원하지 않는데 외모를 평가 당하는 일 등, 운동에 관련된 경험이 거의 불쾌함과 연결돼서 운동을 기피한다. 그 결과로 기초체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 성인이 된 여성이 사춘기 때 멀리했던 운동을 다시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체중감량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성별에 따른 운동 능력과 공정성

남성들은 운동장 내 성과별과 더불어서 ‘운동 능력이 (때로는 남성보다 더) 뛰어난 여성’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세계 랭킹을 석권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성별이 여성일 경우, 일반 남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남성에게는 남성의 체력과 운동 능력이 여성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신화적인 믿음이 있다. 이는 선천적으로 작용하는, 좁혀질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여성은 절대로 남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그들은 이 믿음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운동선수라도 여성 리그에서, 여성하고만 경쟁했다면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자 운동’에서 두각을 드러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성 못지않게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진 여성을 보면 ‘여자가 아니다’, ‘남자 같다’는 말로 야유한다.

그들에게 운동은 남성에게 허락된, 남성만이 잘할 수 있는, 남성적인 행위이고 남성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보면 남성성을 침범당한 것 같은 불쾌한 감정부터 느낀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자도 아니다’라는 말로 모욕한다.

운동과 자기계발

최근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존의 ‘여성이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인식된 종목을 벗어나 격투기나 구기 종목 등을 접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적대상화되기 쉬운 예쁜 몸, 마른 몸이 아니라 오래 일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신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시작하는 동기는 개개인의 자기계발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결국 성차별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여성이 많아지면 기존의 여성이 진출할 수 없었던 분야, 예를 들면 군인, 경찰, 건설 노동자와 같은 직업에서 여성을 배제할 명분이 사라진다. 또 남성 파트너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탁하지 않음으로써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일 수 있다. 끝으로 팀 운동, 구기종목 등을 통해서 여성이 같은 팀이 되어 협력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

성들간의 연대의식도 고취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

지금까지 여성의 몸은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존재했다. 그러니 지금의 2030은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몸이 강력한 도구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피트니스 문화에 일부 포함된 구시대적인 프로파간다가 재현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운동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좋은 수단임은 분명하므로 가능성을 미리부터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정' 담론은 왜 젠더 관계를 정초하는가?

엄혜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공정 개념을 둘러싼 층위

- 이론적 층위 ≠ 담론적 층위
- 효율성과 동등한 기회제공이라는 상식적 정의감/분배 정의의 한 범주(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 롤즈의 차등의 원리)
-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와 인정투쟁의 담론 자원으로서의 '공정' 프레임 : '역차별' vs. '기울어진 운동장' ⇒ 공정한 경쟁장
- 공정 논란을 백래시(backlash)로 간주하는 페미니즘 담론 지형

○ 공정 담론의 생성 구조

- '불평등의 부자연스러운 과잉'(Bauman, 2013)
- 제도화된 신자유주의와 체화된 신자유주의(김홍중, 2009)로서의 능력주의의 갱신 및 저변화
- (젠더화된) 차이 및 차별의 개인화와 순도 높은 동질적 피해자성의 집단화
- '청년 세대 담론'으로의 정치적 대리화

○ 젠더 관계의 구조적 변동과 공정

- 복합적 사회 변동이 '젠더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사회적 재생산과 돌봄의 위기 등)의 구조 변화가 사회 변동의 요체에 결속.
- '군대'(남성)와 '여성혐오'(여성)의 대치로 현상화. 청년 남성(공정) vs. 청년 여성(평등)이라기보다는 젠더 보상 체계의 변화에 잔여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
- 근대적 능력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로 이행과 여성의 포괄적 배제 조건의 변화

○ 질문과 과제

- 공정성과 형평성을 초과하는 페미니즘의 젠더 정의는 어떠한 제도적, 사회 담론적 성과를 마련해왔고, 오늘날의 점검 과제는 무엇인가?
- 사회 전환과 맞물린 페미니즘 기획에서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의 공정성과 젠더 담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동후(인천대학교)

지난 몇 년간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화두였고,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소위 MZ 세대에 관한 담론 또한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시대적 요청이자 과업으로 상정하고, 공정성 프레임 안에 젠더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성 담론은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흡수하면서, 사회에서 다뤄야 할 토픽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론이 하나의 사회적 사실 혹은 현상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언어적 표현 체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헤게모니가 끊임없이 부딪치며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공정성 담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젠더 담론의 형성과정과 이 안에 작동하는 다양한 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이란 용어는 그것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나타나듯이 맥락에 따라 의미나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공평’의 의미와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양팔 저울’을 연상시키는 구체성의 층위와 윤리/도덕적 개념의 추상적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해석의 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찬숙 선생님께서 공정성에 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녀 내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정의(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나 평등(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과 같은 개념 대신 공정을 최우선의 그리고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공정성 담론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빨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담론에 어떠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어떠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할까요. 이러한 담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미디어 학자로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공정성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화된 미디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능력주의, 공정한 경쟁 등을 의미하는 공정성 개념이 정의, 평등, 인권 등의 전통적 개념들을 제치고 사회 담론을 우위를 점하게 되는 ‘지배화’ 과정에는 현재의 젠더화된 미디어 환경이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화된 미디어 기기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

지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깊은 사유나 연대의 과정보다는 그때그때의 개인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할 정보나 네트워킹을 추구합니다. 각종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각자의 필터버블에 머물면서 확증편향에 익숙해지고, 내가 사회를, 사람들을, 주위를 느끼고 대화하고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감각은 미디어에 맞춰져 갑니다(혹은 매클루언식으로 마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논리가 '능력에 기초한 지위를 얻는다' 능력주의적 사회 위계질서 및 기존 젠더 질서와 결합하면서, 이 공간에서 개인의 목소리들은 공평하게 표현되거나 들리지 않고, 원자화된 상태로 충돌하며 헤쳐모여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를 넘나들며 형성된 공정성 담론은 특정 가치와 세계관, 특정 주체의 목소리, 특정 정동을 보다 크게 확산/증폭시키고 재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의식을 틀을 구성하는 담론의 형성과정과 이와 연관된 미디어 환경적 조건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담론 구성에 단순화된 형태로 동원된 'MZ 세대론'이나 젠더 '갈등'론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공정성 위주로 인지하고 논의하는 방식이 우위를 가지는 과정과 그것의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담론에 지목되고 동원된 사람들의 실제 삶의 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 관한 연구는 현재 담론의 모순과 대안을 모색하고 상상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찬숙 선생님과 최이숙 선생님의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찬숙 선생님의 연구는 현재의 공정성과 젠더 담론을 이해하는데, 최이숙 선생님의 연구는 구체적인 현장을 살펴보며 대안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홍찬숙 선생님의 글에서 어떻게 남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 위치를 자리매김해왔는지에 관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목소리의 미디어 동학과 그 안에 다양한 관계성(젠더 간, 젠더 내, 세대 간, 계층 간, 미디어 간 등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사회적, 역사적, 구조적 맥락을 배제하는 능력주의의 공정성 담론의 '지배화', 그리고 현재 단순화된 젠더 갈등의 한계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이숙 선생님이 하신 '3040세대 여성 자기계발서들'에 대한 경험 연구는 공정성 담론에서 빠진 구멍들, 혹은 이러한 담론이 답을 수 없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적 영역의 경쟁, 능력에 따른 성과를 전제로 한 공정성 담론에서 돌봄 윤리(공정한 돌봄/유대?)는 프레임 밖에 머물러 있는데, 여성들의 삶의 결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를 전면에 다루는 담론적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와 배움에 도움을 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공정성과 젠더 담론에 대한 대안 혹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상을 공유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